

곡성군 청소년 진로직업 플랫폼 개관

‘꿈키움마루’ ...기차마을에
4차산업 교육·체험 마당
미래산업 대응 인재 양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4차 산업 진로직업 플랫폼 ‘꿈키움마루’가 공식 개관했다.
꿈키움마루는 교육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곡성군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 조성한 미래산업 대응 교육시설이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함께 투자하고 협력해 만들었다.
기차마을 사거리(곡성읍 읍내리 1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2101㎡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미래산업에 대응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4차 산업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새로운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층에는 곡성군이 공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창의 교육 프로그램 숲 체험을 위해 ‘꿈놀자트리클라이밍센터’도 마련됐다. 실내에서 트리 클라이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에는 수직정원을 조성해 숲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수학 교구를 이용할 수 있는 수학놀이터, 3D 프린터로 자신만의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메이킹 랩, 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워킹 스페이스 등 흥미로운 시설들



유근기(왼쪽 세번째) 곡성군수와 장석웅(오른쪽 첫번째) 전남도교육감 등이 꿈키움마루 내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곡성군 제공>

로 가득하다.

꿈키움마루는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재단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접 강사진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꿈키움마루는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맞춤형 시설이다”며 “곡성의 미래교육을 넘어 지역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이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개항 100주년 맞은 여수항 관련 자료 수집합니다

여수시 범시민운동 전개

사진·고문헌 등...내년 3월까지

여수시가 여수항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 사진과 문헌, 물품 등 자료 수집 운동을 전개한다.
여수시는 여수항의 지나는 100년을 토대로 여수의 새로운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을 펼친다.
2023년은 여수항이 세관지정항으로 지정돼 무역항으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시는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고 여수 개항 100년사 발간, 특별 전시 등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항과 관련한 사진이나 고문헌, 물품 등을 소장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는 제공자의 무상 활용 동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예정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자료는 접수가 제한된다.

참여 방법은 소장 자료의 출처 확인을 위해 제공자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국동 임시별관)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공자에게는 여수 개항 100

주년 기념사업 홍보품을 전달하며, 추후 우수 작품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념사업과 관련해 시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각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자료를 활용할 때 제공자 스토리를 함께 표기해 시민의 자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전 시민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여수항에 대해 집안 곳곳에 잠들어 있는 추억 사진 등을 소장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기념 온라인 세미나

순천시 31일...지속가능 방안 모색

순천시가 오는 31일 순천만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세미나를 의미한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순천만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

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30년 순천만 보전 역사, 세계유산 꽃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순천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이 ‘큰뒷부리도요새의 위대한 비행’을,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강 갯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1세션 ‘30년 순천만 보전의 역사를 기억하다’와 2세션 ‘유네스코 도시, 순천의 미래를 그리다’, 3세션 ‘순천만 세계유산 등재와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 6시50분 노을이 아름다운 해동면 와온해변에서 ‘순천만 갯벌 음악회’가 열린다. 오프닝 공연은 순천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안초등학교 합창단’이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노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순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숙원 국도 77호선 개량 국가 계획 확정

팔영대교~나로우주센터 14km

고흥군의 숙원 사업인 국도 77호선 개량사업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여수권과의 연륙·연도 교에서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흥군은 영남면 우두에서 포두면 옥강에 이르는 총길이 14km의 국도 77호선 도로 개량사업이 최근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여수시와의 연륙·연도교를 통해 나로우주센터와 연결되는 도로로 연륙·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나로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고흥군에서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국도 77호선 개량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9년에 고흥~봉래간 국도 15호선 확장 사업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반영됐다

다가 이번에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도 77호선은 팔영대교를 경유해 고흥의 해안 절경과 해장만 간척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존에 8.5m의 도로 폭을 11m로 확장하고 구불구불한 13개소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안전성을 높여 새로운 관광도로로 역할이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내년 정부(국비)예산에 실시 설계비 등을 반영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흥~봉래간 국도 15호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광주~고흥~나로도 간 고속국도사업을 내년 대선 공약 사업으로 제안해 고흥의 동서와 남북 축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도로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주작경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39곳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완료

보성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마을 45개 중 39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도 시책사업이다.

보성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우리동네 우리가꾸는 보성600’의 노하우를 살려 마을별 추진단을 구성해 전남도 시책에 대비했다.

여러 차례 마을 회의를 거쳐 계획수립, 사업추진, 사후평가의 과정으로 45개 마을이 선정돼 해

당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입구 생활 영농쓰레기 수거, 소규모 정원 만들기, 마을 안길 가꾸기 등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인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을 잘 살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지자체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 기금이나 출향 향우, 마을주민 기부 등을 통해 사업내용이나 규모를 키워 마을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지난 24일 광양경찰서에서 지역 경찰발전협의회 간담회가 열렸다.

<광양경찰서 제공>

광양경찰, 경찰발전협의회 간담회

광양경찰청은 지난 24일 경찰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치안현황 공유 및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진영 경찰서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과 경찰발전협의회 협업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생활안전과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에 맞춰 치매어르신(미

귀가·가출인)의 각종 사고 예방, 수확기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태양광 CCTV 설치·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장진영 광양경찰서 서장은 “더욱 안전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경 협력치안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광양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